

2016년 6월 6일 새벽 정리 말씀1(편집 본)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세주’하고, 그리고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망의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데는 ‘구세주’와, ‘말씀’.

‘구세주’ 찾고, ‘말씀’ 찾고 하면 이제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가 메시아다.” 했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세주’가 있으면 구세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하면, ‘말씀이 시작되었으면 강림한 것’을 압니다. 말씀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보면 말씀을 딱 중단했을 때는 마치 가뭄이 연속되는 것과 같아서 씨를 뿌려도 나지 않고, 나무도 죽고, 대지에 다 생명들이 존재할 수 없이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또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어 가고, 말씀을 안 주면 딱 중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줄 때는 반드시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말씀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선지자나 메시아를 보내서 말씀을 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 새로운 세계의 역사가 시작돼서 사막 땅에 비가 와서 잎이 피고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또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이 안 시작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왔다는 것, 다시 강림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가 하면, 왔으면 그냥 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된다.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하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야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시대의 말씀, 그것을 사람들이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대의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냐.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냐.” 선생도 말씀 갖고 왔잖아요.

요즘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옵니까? 내 얼굴 화면 보러 옵니까? 말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보려고 옵니다. 지금 이 만치만 해도 새벽에 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손을 못 대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없애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가는 길만 사탄이 못 잡는 것.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찾

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구세주나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 먼저 영접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령 선생이 모든 시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그 사람을 안 봐도 “나를 받아들였다. 나를 영접했다.” 하기 때문에 그에게도 말씀이 가지고, 그에게도 역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받으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방 사람이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하는 사람이 잘 해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해 주어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를 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잘 받으려면 본인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하고,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말씀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딱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받고서 말씀의 생활을 하면 이제는 말씀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 몸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같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신부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중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1000년 동안 해도 말씀을 못 받으면 못 이루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성경책이 27권 짜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는 조그마한 ‘쪽 복음’을 사서 봤습니다. 그것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막 비 맞고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없어지더라구요. 그렇게 말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보고.

여러분같이 성경책 갖다놓고 일반 만화책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텔레비전 연속극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자기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으면 하나님께 편지가 온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편지 온 것이나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지구상에 말씀을 제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일 귀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세계에. 영원한 세계의 것! 이 세상 것 말고, 영원한 세계의 것.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그는 신이다.”

말씀 받았으면 이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도 신이 된 것입니다. 신이니까 신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역사하는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은 대개 몰라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인데요. 사람도 신이 되면 별 짓을 다 하는데. 사람도 신이 되어 기도하면 지구 덩어리의 운명이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저리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지구 전체의 운명이 돌아갑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신이 되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말씀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시대를 잘 깨닫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부름을 받고 온 여러분들은 감격하고, 감사하며 말씀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주 죽는 데의 약입니다. 꼭 죽을 것인데 그것을 먹고 살아나는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자기 것이라고.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 때 바로 하나님이 착수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해 봤지요? 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홀연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것으로 변하잖아요. 역시 말씀은 위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추운 데서 떨면서, 손을 붙여가면서, 영하 15도, 20도 가까운 데서 계속 달달달 떨면서 말씀을 받은 것. 말씀 받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그 몸부림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려고 몸부림치지요? 너무 힘들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육신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치고, 여러분들 수호하는 영들, 여러분 도우라고 보낸 천사들이 막 끌고 갑니다. “빨리 가자.”고. 그래도 힘들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야 교회만 가면 말씀을 받잖아요. 선생님은 말씀 받으려고 산에 가서 몸부림을 치고, 힘들고, 어렵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후반기 부활의 말씀은 그 기본적인 말씀 속에 들어온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었으면 우리와 일체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도 안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를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놈의 새끼를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기를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나고, 자기 앞에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선생님은 옛날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기도해 주었습니다. 30년, 40년, 45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계속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 잘 되게 해 주세요. 이 나라에 전쟁도 없게 해 주

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가 해졌습니다. 계속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 끼친 것이 없는데 나만 잡아먹으려고 그러합니다. 나쁘다고 그러합니다. 나쁜 사람의 말을 듣고, 악평자의 말을 듣고 그러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보들입니다. 나를 악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손해 끼친 것이 없습니다.

사명 갖고 따져놓고 보아도 저희들이 집니다. 나에게는 집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입니다. 왜? 사명자 편입니다. 사명자, 하나님이 보낸 자 편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니까 무조건 하나님(사명자) 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와 싸우면 무지 속의 상극세계가 됩니다. 요시아와 싸웠더니 느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도 졌습니다. 느고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느고 왕은 백만 대군을 거느렸기에 하나님이 “어디를 쳐라. 나를 믿는 자들 갖고는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네가 좀 도와주어라.” 했는데 그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되었습니다. 무지 속의 상극 세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사명자가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 옳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를 믿어야 되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적이다.”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구세주이면서 “내 말 듣고 하나님을 믿어라.” 했습니다.

구세주가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면서 “이 말씀 믿어라.” 그것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따라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말씀 듣고 따라오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서 열심히 하고.

금주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서 완전히 신을 만들려고 그러합니다. 결혼했을 때 남자만 많이 알면 안 됩니다. 남자의 사상과 정신과 의도를 여자에게 딱 심어주어서 여자도 같이 알아야 같이 장단을 맞추어서 역사를 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못 펴나갑니다. 같은 사상을 넣어주어야 같이 장단을 맞춥니다.

“말씀이 곧 나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나다.” 했습니다.

“말씀이 나다.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무 다양하게 모든 것을 갖고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보면서 전달하기도 하고, 시대의 말씀 들으면서 전달하기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이렇게 전념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만큼은 완벽하게 해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요. 말씀이 완벽하지 못하면 귀신 영들에게 계시 받아서 자꾸 돌아갑니다. 계시파들 같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근본의 하나님을 깨닫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금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의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끔,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이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썩는 것은 없애야 합니다. 썩는 이를 다 빼내고, 썩는 이를 갈아내서 다시금 이를 해 넣듯이 깨끗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줄지 말고, 기도할 때 똑똑히 하고, 그리고 행실도 똑똑히 실천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어울리고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새로운 역사가 오면 기다리던 역사의 사람들과 항상 싸웠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을 안 받아들iero고 진리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서 그랬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따라와야 되니까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한 격이 되어서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그냥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2000년 신약 역사로 계속 펴 와서 구약 사에 비교가 안 되게 되었습니다. 구약 역사는 4000년 동안 했는데도 조그만치였고, 신약 역사는 2000년 동안 해왔는데 상상도 못하게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권능과 의가 되시고 역사의 흐름을 깨닫고 시대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영접한 것입니다. 내 말을 받아들였으니 나를 영접한 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서 잘되고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평강과 의로 채워주시고,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섭리의 나라들이 모두 잘 되고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계속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복음을 전하라. 계속 전하라. 그렇게 전하면 조금 밖에 안 온다.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때 들으면 올 것이고 안 들으면 그냥 갈 것이다. 전하라.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자라고 하면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평강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